

美·印에 스타트업 글로벌 거점... 수출금융 3조 공급

중소·벤처 해외진출 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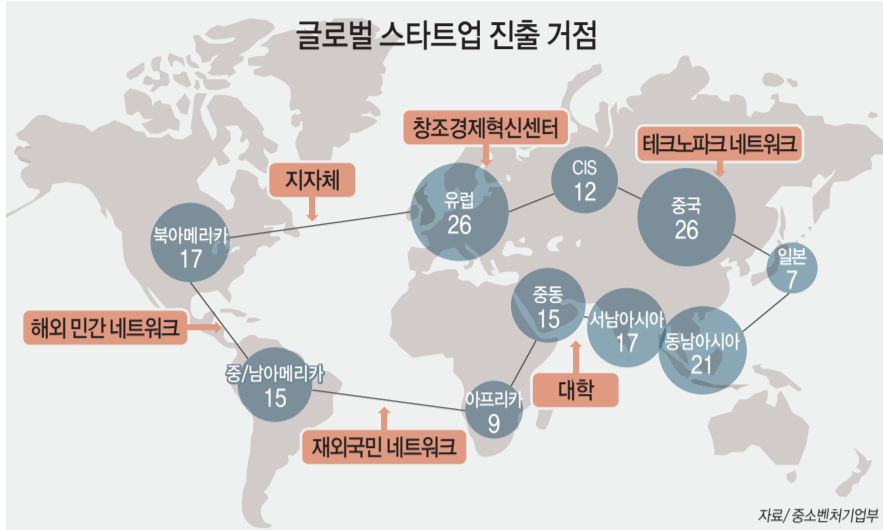
추경활용해 무역금융 2640억원 수출금융 늘리고 금융애로 해소 수출BI, 스타트업 창업 공간으로

정부가 8일 내놓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종합대책에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기업으로 키우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인도, 미국에 스타트업 진출거점을 새로 만들고, 수출비즈니스인큐베이터(BI)와 코트라 무역관을 스타트업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활용, 무역금융에 2640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2조9000억원의 수출금융도 공급키로 했다.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해외에 운영하고 있는 수출BI 22곳과 무역관 20곳을 스타트업 진출 메카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실을 확인할 수 있고, 예약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 지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보유한 해외협력채널과 세계 한인무역협회(OKTA),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등을 연결해 스타트업 진출도 돕는다.

현재 2조1000억원 수준인 '해외벤처캐피탈글로벌펀드'에 모태펀드 1000억원을 포함, 총 3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우수한 해외 벤처캐피탈(VC)들이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스타트업간 협력도 적극 지원한다.

포춘 글로벌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곳당 평균 40~50개 스타트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0개 안팎의 스타트업이 1대1 미팅을 통해 투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교류도 확대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해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2021년까지 스타트업 국제기구 설립

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제안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각 나라의 창업비자 관련 제도 등도 공조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수출금융을 늘리기 위해 무역보험공사(1700억원), 수출은행(500억원), 신용보증기금(320억원), 기술보증기금(120억원)이 추경을 통해 추가 출연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출금융 등의 확대는 지난 3월 내놓은 정부 대책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신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등 무역금융 관련 5개 신규 프로그램을 5월 중 본격 가동해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통합신청사이트도 구축한다. 기존엔 기업들이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사이트를 각각 찾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별 홈페이지와 연계한 온라인 통합신청사이트를 만들어 수요

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신청사이트에 있는 기업정보와 통합관리시스템의 성과정보를 연계, 기업 수출 성과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는 우수기업 지원, 성과평가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수출금융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정보를 중진공, 무보, 기은, 수은, 기·신보에 제공해 맞춤형 수출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는 올해 시범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로 넓힌다.

이외에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을 강화해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과 함께 추진해온 위조상품 공동대응은 올해 아세안 지역의 대응체계를 마련, 내년부터는 아세안 주요 국가로까지 넓혀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수출 지원대책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마다 산재돼 있고 유사한 지원대책도 많아 예산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되, 보다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백년가게'도 젠트리피케이션에 운다

을지로 '을지OB베어' 폐업 위기 임대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열어

'백년가게 줄줄이 나오는데, 한쪽선문 닫을 위기...'

백년가게가 올해 35곳이 추가되며 총 116곳으로 늘었다.

음식점 등을 3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을 발굴, 정책적으로 지원해 1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작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백년가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의 '터줏대감' 을지OB베어는 경쟁 격화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때문에 차질 40년 가까이 지켰던 자리를 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올해 처음으로 백년가게 35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선동보리밥, 부산 동래 온천입구기장곰장어, 대구 밀밭베이커리, 전남 영광 삼성굴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해 말까지 81곳의 백년가게를 지정했다. 올해의 경우 백년가게 심사 항목에 제로페이 가입 여부와 지속가능성 여부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앞서 백년가게 선정평가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과한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경영·마케팅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이들 백년가게를 최종 선정했다.

뽕인 업체는 도·소매업 12개, 음식점 23개 업체로, 지역별로는 서울·강원·경기·충남이 각 2곳, 인천·대전·충북·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이 각 3곳, 경남 6곳이다.

백년가게는 또 올해부터 지방중소벤



강호신 을지OB베어 사장님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OB베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처기업청에서 2개월에 한 차례씩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장성 등을 반영해 지역에 특화된 가게들을 찾기 위해서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올해 첫 백년가게 선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우수한 소상공인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공단은 효과적인 지원으로 백년가게의 추가 성장과 우수사례 확산에 힘써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을지OB베어는 이날 시민단체들과 함께 '을지OB베어와 노가리골목을 지켜주세요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을지OB베어는 OB베어 생맥주 체인 서울 2호점으로 1980년 당시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았다. 생맥주와 노가리가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한 두명씩 모이며 지금의 '을지로 노가리골목'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2015년에 을지OB베어와 골목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백년가게인 이곳이 '을지로 노가리호프 축제'를 코앞에 두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울고 있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VC와 벤처가 만나는 스타트업 축제 열린다

(벤처 투자자)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19' 조직위원회 출범 박영선 "세계적 행사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19'의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ComeUp은 스타트업의 잠재된 가능성이 다양하게 발현된다는 의미다. 이날 행사는 조직위원회 출범 선포와 위원 위촉,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의 브랜드 발표회로 진행됐다.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19'는 오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된다.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부산 벡스코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대행사에서, 오는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세계 각국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투자 유치, 파트너십 체결 등 글로벌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중기부는 이번 '컴업 2019' 행사를 통해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에 해외 벤처 투자자(VC)와 국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여섯번째)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의 브랜드인 '컴업(ComeUp) 2019'를 조직 위원들과 함께 선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외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19'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스타트업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컴업 2019'에서는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행사를 기획하는 등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다양한 스타트업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스타트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직위원회는 총 16명이며, 배달의민족 대표인 김봉진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인 석승훈 위원장 2인의 공동 위원장과 민간 전문가 14명을 조직 위원으로 구성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의 브랜드인 '컴업 2019'를 조직 위원 16명과 함께 선포했다. 박 장관 "한국의 '컴업 2019' 행사가 핀란드의 SLUSH, 미국의 CES와 같은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배한민 기자 ericabae1683@

스마일게이트 독거노인에 카네이션·생필품 전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분당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스마일게이트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과 생필품을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3일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남시 관교

스마일게이트 캠퍼스사옥에서 전문화에 작가(플로리스트)를 초빙,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제작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100여명이 임직원들이 참여해, 자신의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과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할 카네이션을 직접 제작했다. /김나민 기자 silkni@



스마일게이트 직원이 7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